

고백과 용서의 담론

— 이회성의 『백년 동안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변화영(전북대)

1. 들어가는 말

이회성은 재일한인 제 2세대 작가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모국으로의 귀환을 믿으며 민족 의식을 구가한 1세대 작가들과 달리, 2세대 작가들은 이주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에서 비롯된 국적과 세대의 문제를 통해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회성, 김학영, 고사명 등, 일본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은 2세대 작가들은 김달수, 김석범, 김태생 등의 1세대 작가들과 그 문학적 토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2세대 작가들 가운데서도 이회성은 다른 작가들과 사뭇 다른 체험들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고향이 사할린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회성은 1935년 가라후토 마오카에서 태어났다. 가라후토(樺太)는 지금의 러시아 사할린으로, 원래는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었다. 1850년 이전에는 일본인 어부들이 사할린 섬 남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나 1853년 이후로는 러시아인들이 들어와 북부 지역에 정착하였다. 1855년에 러시아가 일본과 노일화친조약을 맺고 사할린을 러시아인과 일본인의 잡거지역으로 정했다가 1875년에는 양국이 국경을 재조정하는 화태천도교환조약(樺太千島交換條約)을 체결하여, 사할린은 러시아에 남고 쿠릴 열도는 일본에 귀속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북위 50° 이남 지역을 일본에 양도함으로써 사할린은 1945년 종전될 때까지 일본의 영토였다.¹⁾ 사할린이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러시아로 그 소속이 바뀌었듯이 이회성 또한 국적에서 비롯된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²⁾

종전 후 1946년 12월 19일, 일본은 미소귀환협정으로 자국민 30만 명을 귀환시켰으나 조선인에게는 배 한 척 보내주지 않았다. 조선이 해방되었으므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4만 여명의 조선인은 이제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체결 때까지 조선인과 중국인 등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이 계속 유효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1947년 쇼와 천황의 마지막 칙령으로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면서 식민지 출신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였다. 일본 국적은 유효하지만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일본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소련 점령의 사할린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선인들이 밀항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회성도 사할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밀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회성은 이봉섭과 장술이의 5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황해남도 어머니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그들은 일본에서 만나 결혼하여 1930년대 초에 사할린으로 건너갔다. 이회성은 사할린에서 태어나 12세까지 살았다. 종전 후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하여 스탈린 통치 아래 놓이게 되자 그의 가족들은 서둘러 그 섬에서 탈출하였다. 스탈린의 비밀경찰이

1) 이순형, 『사할린 귀환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2쪽.

2) 이회성의 문학적 생애 및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송하춘(“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 『한국학연구』, 11권 1호, 1999.)과 양명심(“이회성 초기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협화회 간부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하기 시작했는데, 이회성의 아버지도 이 조직의 자부 간부직을 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일본인 귀환선을 타고 간신히 밀항에 성공했으나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에서 미군정청 사람들이 그들을 소련의 스파이로 간주하는 바람에 전원 고국으로 강제 소환될 처지에 몰렸다.

이회성 가족의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로의 밀항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그들은 유대계 소련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사할린에서 탈출했지만 나가사키 현의 하리오 수용소에서 부산행 배를 기다리는 동안 분단과 테러 등, 조국의 불안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접하고 난 후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기로 하였다. 이로써 조선인 이회성은 일제강점기와 또 다른, 재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4년에 발표된 『백년 동안의 나그네』는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회성이 자신의 유랑 체험들을 형상화한 장편소설이다.

『백년 동안의 나그네』는 상·하권, 2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 13장으로 엮어진 상권은 귀환자 조선인들의 아오모리에서 시모노세키에 이르는 여정이, 14장에서 23장까지의 하권은 나가사키현의 하리오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주로 이야기되어 있다. 일제당국은 조선인들을 홋카이도를 통해 사할린으로 이주하는 경로, 즉 최종 집결지인 부산에서 시작하여 시모노세키, 도쿄, 아오모리,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거쳐 사할린 남단의 코르사코프 항에 도착하여 탄광에 배치하는 과정을 주로 택했는데 『백년 동안의 나그네』는 그 경로와 정반대이다.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다섯 가족, 20명은 해방을 맞아 징용과 반대의 경로를 밟아 귀향하지만 소련 점령의 사할린에서 불법으로 밀항했기 때문에 강제 귀환을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일본의 하리오 수용소에 있는 동안 일반 귀국자들에게서 전해들은 조국의 현실은 그들을 두 갈래 방향으로 흩어놓았다. 한인으로 귀국하느냐 재일한인으로 남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진술하게 털어 놓으며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게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용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담은 고백 없이는 타인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나타난 공간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담론구조를 살펴본 다음, 그 공간들이 고백과 용서를 향한 의미들과 맞물려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주변인으로서의 한인, 나그네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다섯 가족, 20명의 조선인들은 사할린에서 탈출한 밀항자들이다. 마오카 지부 협화회 부회장이었던 박봉석 가족, 여관을 운영하던 유근재 가족, 최목사 부부, 서만철 부부, 이재길 부부, 주두홍 등은 일본인 귀환선을 몰래 타고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에 입항하였다. 나흘 동안 하코다테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하선한 그들은 귀환자 수용소에서 3주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다. 불법 밀항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귀환자 협정에서 재일한인이 제외되자 그들은 일본인 틈에 끼어 몰래 사할린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코다테 수용소에 있는 동안 그들은 거의 날마다 미군정청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나절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패전한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군의 점령 아래 놓였다. 이에 하코다테 점령군 사령부가 소련 점령의 사할린에서 밀항한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었다.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탓에 미군 심사관들은 밀항자 처리 문제에 고심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심사관들은 미군 강점의 일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파업과 소요를 주도하여 통제가 어렵게 되자 사할린에서 밀항한 조선인들 또한 소련 스파이로 활약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다섯 가족 20명의 밀항자들을 조선으로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도무라 경부보와 다나카 순사가 다섯 가족과 독신자 한 명을 포함한 20명의 인원을 아오모리에서 나가사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전체 인원 20명. 다섯 가족과 독신자 한 명을 포함한 수였다. 다나카(田中) 순사는 상관 옆으로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보고했다. “이상 없습니다.” 도무라 경부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상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사키(長崎)까지 압송하는 게 그들 두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였다. 일행 중에는 병든 노인과 임신한 여자에 젖먹이도 있다. 성가신 일행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국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들을 무사히 호송하는 게 두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다. 미군정청의 명령에 따라, 이들 밀항자들은 일본에서 해외로 추방당하게 되어 있었다.(상: 11)³⁾

아오모리에서 나가사키까지는 기차로 이틀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암에 걸린 최목사와 임신한 기미코, 유근재의 젖먹이 아들 류조를 비롯한 20명 일행은 하코다테의 사령부 명령에 의해 일본인 경찰관의 압송 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할린에서 탈출한 것이지 일본에서 비국민으로 살기 위해 탈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라는 심사관의 결정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귀국한다 해도 금의 환향이 아니라 강제 송환되는 신세로 전락하자 귀환자들은 허탈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패전한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적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본은행 예치증 한 장과 단돈 천 엔으로 귀환을 허가하는 바람에 그들의 설움은 극에 달했다. 다섯 가족 가운데 3남 2녀의 가장인 박봉석과 1남 2녀의 가장인 유근재는 귀국 후 천 엔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지경이다. 하지만 사할린에서의 탈출은 협회회 간부를 했던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근재는 일본인 아내 마쓰코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봉석보다는 처지가 좀 나은 편이었다. 박봉석은 섬을 떠나기 위해 일본인으로 가장하면서 백방으로 손을 쓴 덕분에 여섯 식솔을 거느리고 용케 사할린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박봉석은 17살 되던 해인 1921년에 세 살 위인 형과 둘이서 돈벌이를 위해 고향 함경남도 이원을 떠났다. 만형은 선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고 일본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그는 형 진석과 함께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연락선을 타고 이곳에 왔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렇지만 낯선 땅 일본에서 형제가 생계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봉석은 혼슈의 한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가 전처를 만나 결혼했다. 막장에서 석탄이 무너져 간신히 살아남은 후로는 탄광 근처에 얼씬하지 않을 작정으로 박봉석은 형님 식구들과 훗카이도로 건너왔다. 아내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봉석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탄광에서 일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탄광 일에서 손을 떼려고 형제는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 사할린은 조선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에게는 북쪽 끝의 막다른 곳이었다. 박봉석은 사할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는 감차카 반도까지 밀렵을 하러 갔다가 경제사범으로 체포되어 마오카 형무소의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그곳에서 박봉석은 유근재를 처음 만났다. 칼부림 끝에 옥살이를 하게 된 유근재와 통성명을 한 뒤로

3) 이회성, 김석희 옮김, 『백년 동안의 나그네』, 프레스빌, 1995(이 글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때 상, 하 다음에 표시된 숫자는 이 책의 쪽수를 나타낸다).

박봉석은 곰보에다 덩치가 크고 주먹이 센 그와 친해졌다. 박봉석은 유근재와 더불어 형 진석, 남창원, 송태식 등과 계를 조직하였는데, ‘사지동거’(死之同居)가 그것이다.

‘사지동거’의 회원은 다섯 명으로 그들은 친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애를 나누었다. 그 군은 결속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남창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협화회 지부 회장을 맡은 바람에 1945년 8월 15일 이후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백 가구도 채 안 되는 마오카의 조선인 사회에서 남창원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포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정성껏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창원은 오다니(大谷) 비행장 건설에 조선인을 동원하였으며 전쟁터에 나가는 조선인 청년들을 환송하기도 하고 전투기 ‘협화호’를 일본군에 헌납하는 모금 활동도 했다는 죄목으로 소련 비밀경찰의 처단 대상이 되었다. 일본 지배의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한 일이었지만, 결국 남창원은 일제에 협력한 조선인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후 종적을 알 수 없는 남창원을 생각하면 박봉석은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사지동거 회원 가운데 박봉석은 유근재와 함께 귀환선을 탔지만 형 진석은 러시아군이 진격해 올 때 총에 맞아 죽었고 송태식은 사할린에 남았으니, 서로의 엇갈린 운명이 마치 사할린 한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다.

박봉석은 하코다테 사령부의 심사관들에게 불만이 많다. 전시에 조선인은 협화회 가입을 강제 당했으며 협화회 수첩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협화회는 조선인을 감시하고 노무동원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기관으로 사실상, 조선인 모두가 협화회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미군 심사관은 협화회 지부 부회장을 지낸 전력을 내세워 박봉석을 소련이 파견한 스파이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소련 점령의 사할린에서 일제에 협력한 주구(走狗)로 취조 받은 적이 있는 그로서는 미군 점령의 하코다테에서 소련의 스파이로 취급당하는 이 같은 상황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미스터 박.” 둥근 얼굴의 일본계 미국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소련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민정서의 무슨 과입니까? 이름은? 우리한테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박봉석은 두 사람의 시선이 자기한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자기만 등받이가 없는 결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이 웬지 싸구려로 꾸며지는 것이 우스워서 자조하고 싶어졌다. 백인이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그 연기가 하얗게 소용돌이치며 올라가는 것이 인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중대한 의미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의깊은 백인의 얼굴이 연기 너머에서 이쪽을 살피고 있는 것도 사할린의 조사실과 똑 같아서, 그는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고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그때도 러시아인은 위엄을 차리고 있었고, 조선계 소련인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처럼 굴고 있었다.

“어째서 소련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요? 당신과 그 사람은 어떤 관계요? 당신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그자의 이름을 대시오.” 박봉석의 얼굴에 얼핏 미소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나쁘게 생각지는 말아주십시오.”(상: 125-126)

박봉석은 하코다테 점령군 사령부에서 미국인 대위와 일본계 미국인 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사관이 통역을 맡았는데, 상사인 미국인에게 굽실거리며 대하는 그를 보면서 박봉석은 소련에서의 조사실과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 놀란다. 자신을 심문하던 러시아인과 조선계 소련인이 그랬듯이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 또한 주인과 하인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 여권으로 귀환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여권을 위조해준 소련인의 이름을 대라며 박봉석을 당혹한다. 하지만 박봉석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이름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한 시간 정도 심문이 지나자 박봉석은 표정이

비굴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을 스파이로 모는 의도가 무엇이나
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취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박봉석
은 하코다테의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3주 동안 거의 매일을 점령군 사령부에 들어가 여권을
만들어준 소련인의 이름을 묻는 취조를 받았다. 아들 준호도 조사를 받았는데, 소련 민정서
에서 통역관으로 일한 전력 때문에 다른 밀항자들에 비해 취조 받는 시간이 길어지곤 하였
다.

조사실을 나온 박봉석은 사할린에서 일본인 구장으로부터 자살을 강요받았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마음이 심란해진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방송이 있
은 며칠 후, 구장 기지마 기쿠지가 박봉석에게 협화회 지도원인 이상 내선일체화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할복하라고 협박했던 것이다. 그때 박봉석은 패전의 책임을 조선인에게 전가하
면서 자결을 강요하는 일본인 구장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박봉석은
시간과 돈을 들여 방공호를 뚫었는데, 소련이 함포사격을 가할 때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공호로 피신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으
로 만든 방공호가 많은 사람을 구했던 것이다. 이때 구장은 식구들을 방공호에 밀어 넣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봉석은 구장이 그 길로 자결을 선택한 줄 알았었다. 하지만 그는 멀쩡
히 살아서 귀환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사할린 전체의 협화회 회장도 귀환선으로 무
사히 귀국했다고 한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2년 전의 기억들이 조사실을 나온 박봉석을 우울
하게 한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선인은 내팽개치듯 사할린에 버려
졌다. 독립한 조선에서도 이들을 위해 배 한척 보내주지 않았다. 박봉석은 자신이 밭 딛고
사는 땅을 누가 강점했느냐에 따라 매번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고통
스럽지만, 일본인 구장과 같은 주류 집단의 개인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유대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수용소로 돌아온다.

한인들은 일본 지배의 사할린에서는 일본인의 주변인으로, 소련 지배의 그곳에서는 러시
아의 주변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여기’와 ‘저기’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유지하였다. ‘여기’도
‘저기’도 동화될 수 없는, 혹은 동화되지 않으려는 자기를 자각하고 있기에 한인들은 상대적
으로 주변인인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인간적인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었다. 어느 집단
으로부터, 어느 집단의 핵심적인 가치로부터, 그리고 어느 집단의 연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이방인,⁴⁾ 즉 나그네들이기에 한인들은 제국주의 일본과 러시아에서 민족의 한
개인이 아닌, 인간의 한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한인의 동아시아 거점, 사할린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유랑의 역사는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0년대 이후 조선
백성들은 극도의 가난과 기근, 수탈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등지고 러시아 땅으로 건너갔
다.⁵⁾ 두만강을 건너 그들은 주로 우수리스크에 모여 살았다. 일제 강점 이후 이주민은 급격

4)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38집 6호, 2004, 23쪽.

5)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주의 원인은 북한 지방의 기근과 가난에서 비롯
되었다. 두만강을 건너 1863년 13가족이 노부고로드만 지역과 포셋 지역 해안에 이주하였으며,
이듬해는 60가구 308명이 포셋 지역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의 농민 이주
를 촉진하기 위해 1861년 2월 19일 농노제(農奴制)를 폐지하였고, 1861년 4월 27일의 「동시베리아
의 아무르와 프리모르스카야 주 지방의 러시아인과 이국인의 이민에 대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히 늘어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등, 극동 연해주에 17만여 명이 살았다. 한인 중에는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건 볼셰비키혁명(1917)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극동 지역의 한인들이 일본의 소련 침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한인들의 추방을 결정하고 1937년 9월에는 7만여 명을, 10월에는 17만여 명의 한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분리정책의 일환으로 1860년대부터 70년 간 연해주의 동토를 개간하고 정붙여 살아온 한인들은 횡단열차 화물칸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살을 예는 초겨울의 시베리아 별관을 따라 난방도 안 되는 열차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수많은 한인들이 죽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걸려 도착한 중앙아시아는 황무지였다. 살아남은 한인들은 갈대와 늪으로 뒤덮인 불모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들은 박토를 옥토로 바꾸면서 조국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해 나갔다. 곡식이 자라는 땅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김영태도 1937년의 강제 이주자들 가운데 한사람이다. 김영태, 소련 이름 김 미하일 온테비치는 연해주의 포셰트라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1937년 가을 추수 직전에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그는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하였다.

“김 미하일 온테비치...” 박봉석은 망설이며 물었다. “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갔습니까?” 이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에게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을 정도였다. 김 미하일 온테비치는 얼굴을 흐리며, 박봉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어떻게 설명할까를 한참 궁리하다가 입을 열었다. “박동무. 고려인이 가지 않은 데가 있을까요?” “유랑민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에...” “큰소리로 떠들 수는 없지만, 1937년 가을에 일어난 일은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 삼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는 당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레닌의 당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일을 역사에 물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화물열차가 우리를 뺨뺨이 신고 8천 킬로미터를 달렸지요. 한 달쯤 걸린 대이동이었습니다. 대단한 여행이었지요. 그래도 고려인은 살아남았어요. 중앙아시아 각지에서 또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이니까, 아무리 사막 같은 곳에 가도 생각하는 거라고는 그저 쌀농사뿐이랍니다.”(상: 176~177)

박봉석은 부두 콤비나트에서 부지배인으로 일하는 김영태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김영태가 함경도 특유의 투박하고 강한 사투리를 쓰기 때문이었다. 사할린에 건너온 조선인은 대부분 남조선 출신으로, 자신처럼 북조선 출신은 극히 드물었다. 김영태는 사할린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가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김영태의 부모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들어온 것은 조선조 말기였다. 그의 가족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에게 연해주에서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나라 잃은 한인에게 정착이란

규칙에 의하면 극동으로 이주하는 농민에게 인두세 및 여러 가지 세금 감면과 더불어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인의 이주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을 발해 1945년 종전까지 한인 15만 명을 강제로 모집하였으며, 1944년부터 일본 본토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자 약 10만 명을 다시 징용하였다. 종전 후 1946년 소련 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인 43,000명이 사할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할린의 인구 구성을 보면, 러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우크라이나인, 한인, 오르크, 니호키, 예벤키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소수민족으로는 한인이 가장 많다(이순형, 앞의 책, 2-8쪽).

유랑의 연속선상에 있는 탓이다. 스탈린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할린으로 파견되기 전까지 김영태는 카자흐스탄의 집단농장 콜호즈에서 일했었다. 그는 부임하는 기회에 고향 연해주의 포세트에 들러 보려고 열차를 갈아타면서 8천 킬로미터를 다시 되돌아왔다.⁶⁾ 카자흐스탄에서 연해주까지, 연해주에서 사할린까지 이 지역을 잇는 지리적 위치선상에 김영태와 같은 한인이 살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 홋카이도로, 홋카이도에서 사할린으로 떠돌아 다니는 길에는 박봉석처럼 나라 잃은 이주민의 인생역정이 녹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인에게 사할린은 러시아의 영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중앙아시아를 잇는 시발점이자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된다. 요컨대, 사할린은 한인의 동아시아적 거점지역인 것이다.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한인의 동아시아적 거점으로서 사할린이 지닌 공간적 의미는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삼각형의 연결 지점들, 즉 부산과 시모노세키와 사할린을 통과하는 공간들과의 상호작용을 아울러 살펴볼지 않으면 접근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할린으로의 한인 이주는 일제강점기에 증폭되었으며 국적 문제로 인한 유랑인의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이 지니는 이와 같은 공간적 의미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오모리에서 시모노세키에 이르는 기차 경로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에서 내리는 일반 승객과 귀환자들보다 앞서 한 무리의 조선인들이 트랩에 나타난 것은 7월 27일 새벽이었다. 아오모리 항의 칙칙한 잔교에 옆구리를 붙인 세이칸 연락선(일본 혼슈의 북쪽의 아오모리(靑森)와 홋카이도 남쪽의 하코다테(函館)를 왕래하는 선박)의 돛대 위를 갈매기 몇 마리가 날고 있었다. 바다 냄새가 났다. 한 무리의 그들은 갈매기나 바다 내음에는 마음을 줄 여유도 없이, 짐을 짊어진 채 발밑을 조심하면서 트랩을 건넜다.(상: 9)

조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조선인들은 아오모리 역에서 나가사키 행 기차를 탔다. 그들 20명은 승강구에 영어와 일본어로 ‘승차금지’ 팻말이 걸려 있는 열차 한 량을 독차지하고는 하리오 수용소까지 호송을 담당할 도무라 경부보와 다나카 순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나가사키 현의 하에노사키 역까지 움직일 예정이었다.

아오모리(靑森) 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센다이(仙台),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고베(神戸)를 거쳐 히로시마(廣島)를 지날 때, 사람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끔찍한 광경에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고향 센다이를 통과하자 서운한 감정을 쉽게 감출 수 없었던 마쓰코도, 고베 역에서 승차금지 차량의 탑승 여부를 놓고 도무라 경부보와 일본인 승객 사이의 실랑이를 조정하고자 했던 유근재와 최복사는 물론, 오사카 역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길로 내뺄 기회만 노리던 이재길도 모두 창 너머의 처참한 폐허에 망연자실하였다.

그들 눈앞에 가득 펼쳐져 있는 것은 폐허였다. 불에 타서 허허벌판처럼 변해버린 도시, 곳곳에 쌓인 기왓장과 벽돌 더미가 희뿌연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도시의 잔해였다. 그들의 눈은 이 황량한 풍경을 탐욕스럽게 훑어보았다. 자세히 보면 녹슨 철골 옆이나 무너진 콘크리트 도로, 또는 뒤틀린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건축 중인 건물이나 가건

6)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하는 1세나 2, 3세대뿐 아니라(정근식·염미경,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호, 2000, 참조)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여러 민족 국가들이 독립한 후, 한인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인 연해주나 사할린으로 재이주해 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 또한 아울러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도 꽤 많이 섞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폐허의 처참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역의 입장에 만족하고 있을 뿐이었다. 철로변 땅바닥에는 좌판이 즐비하게 놓여 있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무언가를 먹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잡초처럼 억세고 질긴 인간의 곳곳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보였다.(상: 280~281)

히로시마는 1945년 연합군에 의해 원자폭탄을 맞아 폐허가 되었다. 종전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폐허가 된 도시에는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일그러진 도시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팔고 무언가를 먹으면서 용케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도 섞여 있다. 징용이나 징병이든, 자발적 이주이든 조선인은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 그 도시에 있었다. 대량살상의 폭탄 투하로 엄청난 수에 달하는 조선인도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폐허의 도시에서 자행된 전쟁의 흔적을 뒤로 하고 기차는 곧 이어 시모노세키(下關) 역에 도착하였다. 시모노세키 역은 산인선(山陰線)과 산요선(山陽線) 등 몇 개의 노선의 기차가 떠나는 시발역이므로, 일본 국내로 퍼져 나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10 시간 정도만 연락선을 타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 사할린에서 서로의 짝을 만나 인연을 맺기 전에 마쓰코의 남편 유근재와 박봉석의 새 아내 춘선이 각각 노무자로 위안부로 일본에 들어와 처음 밟은 땅이 바로 시모노세키였다. 그렇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시모노세키에서 떠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일본인 귀국선으로 밀항한 탓에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은 나가사키의 하에노사키 역에 내려 부산행 이송선이 올 때까지 하리오 수용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기차 밖으로 지나치는 도시들, 즉 센다이, 도쿄,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시모노세키는 일본 국내를 연결하는 주요 도시들이다. 아오모리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기차길은 일본의 남북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길은 또한 아오모리에서 홋카이도를 거쳐 사할린으로 이어지는 길과 통해 있다. 이로써 사할린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들이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 그곳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 된다. 이회성에게 사할린은 고향이지만,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그곳은 우리에게 동아시아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야 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4. 휴머니즘의 새 얼굴, 초국가주의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주두홍이다. 아오모리 역에서 다섯 가족 20명이 기차를 탔는데, 홀로 탑승한 주두홍은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하코다테의 귀환자 수용소에서 그들과 합류했을 때부터 주두홍은 사람들에게 쌀쌀한 태도를 취했었다. 주두홍이 귀환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함께 일본인들 틈에 섞여 귀환선을 타고 소야(宗谷) 해협을 건넜다고는 하지만 협화회 지역 간부로 일했던 그들과 주두홍 자신을 같은 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에 협력한 죄가 문제되자 재빨리 도망친 협화회 간부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마다 주두홍은 그들의 가증스런 얼굴에 간신히 분노를 삭였었다. 선주(先住) 조선인으로도 불렸던 협화회 간부들은 징용으로 끌려온 동포를 ‘햇바지’라 부르며 멸시한 차별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이런 사

람들과 뒤섞여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차에 오르기 전까지도 사람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기차에 탑승하여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협화회 간부였던 박봉석과 유근재에게도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다. 주두홍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한 계기는 이재길이었다.

이재길은 주두홍이 징용으로 끌려간 탄광의 노무반장이었다. 그는 일본인 감독을 부하로 거느리고 돼지도 안 먹을 음식을 주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광부들을 혹사하였다. 1,500명의 징용 광부들이 2년 만기가 되었는데도 이재길은 그들을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커녕, 전시라느니 전국이 비상사태라느니 후방전시라느니 뉘달하면서 석탄증산을 재촉하였다. 그런 이재길이 지금 주두홍 앞에 나타난 것이다. 주두홍은 이재길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만나면 이번엔야말로 숨통을 끊어놓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상대였다. 그 상대가 또다시 임신한 일본인 아내와 의붓아들 도시오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주두홍은 고국에 처자식이 있다며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이재길을 인정에 끌려 살려둔 자신을 책망한다. 주두홍은 물론, 일행들도 이재길이 임신한 기미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고 있다. 일본인 호적에 들어가면 조선인도 홋카이도로 오는 귀환선을 탈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재길은 기미코와 결혼하는 교활한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재길의 교활하고 야비한 인간성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기에 모두들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오사카 역 도착 10분 전에 최목사는 이재길에게 다가가 ‘아이는 죄가 없다’며 계속 말을 걸어 그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기까지 하였다. 이재길은 그런 최목사를 기차 밖으로 떠밀고 단숨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정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다. 이재길이 한사코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총살이나 감옥행으로 혹독하게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오사카에서의 탈출 계획이 무산되고 기차가 시모노세키를 지나자 이재길은 다나카 순사와 최목사에게 탄광에서의 악행들을 임무 수행을 위한 노무반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죄만 하려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피력한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말단에서 일한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조선인은 금방 남을 의심하는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두는 거지만... 조선인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민족입니다. 역사의 시계추에 휘둘러서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우왕좌왕할 뿐이지요. 그리고 ‘개인’이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한 민족이에요. 이러다가는 조선도 이제 곧 소련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거나, 유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민족주의의 돌대가리 집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있게 예언하지만... 다행히 일본과 조선은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 나는 우리 조상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귀화인’이 여러 가지 훌륭한 문화와 재산을 일본에 전해주어, 이 나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일본인’이 된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가슴을 펴고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터무니없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적으로는 어엿한 ‘일본인’인데, 정치적 모략에 걸려들어 강제로 추방당하려 하고 있으니까요.(상: 340-341)

이재길은 해방이 되자 “말단에서 일한 사람에 불과”한 자신을 조선인들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악당이나 민족반역자마냥 대한다며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는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조선인들을 시대착오적인 “미개한 민족”으로, 조선을 “유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민족주의의 돌대가리 집단”으로 맹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국제법상 자신은 어엿한 일본

인이므로 조선으로의 강제 소환은 옳지 않다고 항변한다. 국적으로는 일본인인테 정치적 모략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으니 억울하다면서 이재길은 백제의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으로 가져와 태자를 가르치면서 살았듯이 자신도 일본에 귀화하여 이 나라 발전에 주춧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최목사와 다나카 순사의 응대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담론은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만 하려는 반민족적 기회주의자 이재길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하리오 수용소에 도착한 후에도 이재길은 이곳을 빠져나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길의 거동을 주시하고 있는 주두홍이 있는 한, 기회를 포착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이재길은 유근재의 큰딸 사나에를 성추행하고는 밀주를 팔던 아이를 이용해 하리오 수용소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다. 이재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두홍이 황급히 뒤따라가는 바람에 성폭행 직전의 사나에는 간신히 구했으나, 밀주 팔던 아이에게 머리를 얻어맞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그 덕분에 이재길은 밀주 판매용 배를 타고 아이와 함께 강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배가 뒤집혀 둘은 강물에 빠진다. 이재길은 비겁하게도 헤엄을 잘 치는 아이를 희생해서 살아남았다. 주두홍은 식민지 근성의 전형인 이재길을 용서할 수 없다. 이재길 같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민족을 등에 업고 남을 희생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12호 동 앞을 지나던 주두홍은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1947년 이후로는 남한에서 밀항해온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들은 출입금지 구역인 12호 동 특별구역에 감금되어 있었다.

“부탁이요. 제발 부탁 좀 들어주시요.” 창가의 사내는 매달리듯 외쳤다. “나는 남조선 특무대의 그물을 피해 밀항해온 사람인데, 강제로 송환되면 놈들 손에 죽고 말거요. 내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한테 전해주시요. 일본의 이 수용소에서 당신네 아들을 만났다고 말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 한 통만 써서 보내주십시요. 아들이 1947년 8월 9일에 일본에서 송환되었다고. 제발 부탁이요. 내 부탁은 그것뿐이요. 인정이 남아있거든랑 전해주시요. 내 이름은 ○○○이요, 아버님 성함은 xxx이요.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군 △△면 □□리요. 다시 한번 되풀이허졌소. 내 이름은...” 창가의 사내는 다시 한번 자기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리고 고향 주소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미칠 듯한 염원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주두홍은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하: 256)

특별구역에 갇힌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길 가던 주두홍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며 부모님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12호동에 수용된 사람들은 일반 귀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창가의 사내가 주두홍에게 매달리듯 외쳤던 것이다. 순수하게 민족을 위해 투쟁한 사내를 일본정부와 미점령군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 본국으로 보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남한으로 보내지면 독재자한테 붙잡혀서 평생 감옥에 갇히거나 총살당할 신세이다. 주두홍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사할린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내는 스탈린 치하의 소수민족 조선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가를 알 수 없기에 스탈린 만세,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남한의 독재와 테러를 경고하고 민족해방의 신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 대한 체험이 없는 맹목적인 사내의 신념이란 분단된 조국에서 민족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편협된 사상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서로 도울 때 진정한 신념에 이를 수 있다. 주두홍은 이 점을 시골 아낙네의 휴머니즘적 태도에서 배웠다.

인간은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도울 때 가장 인간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상을 그는 그 시골 아낙네를 통해 배웠다. 그 아낙네야말로 그 사상의 스승이자 구현자였다. 한 민족이 동포를 감싸거나 돕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물며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고 있다면, 자기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민족이 한 사람의 동포를 구하기 위해 다른 민족에 딸린 한 사람의 이웃을 죽인다면, 그 민족은 이미 위험하다. 이 20세기는 이런 민족 간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무엇일까? ‘민족’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로써 내재된 존재.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런 인생관을 공유할 때만이 인류의 내일에는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은 민족으로 존재하는 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이 되어 버리는 집단인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러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지상에서 모든 민족이 해체되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날은 아마 500년이나 지나도 오지 않을 것이다.(하: 252)

주두홍은 사할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병어리 행세를 하면서 알몸으로 길바닥을 뒹굴며 자기가 썩은 빵을 먹었다. 그런 주두홍을 길 가던 아낙이 보고는 집으로 데려가 몸을 씻겨 주고 따뜻한 빵과 잠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결국에는 그가 소련 점령의 사할린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민족을 초월한 한 인간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에 도달하는 길이며 20세기의 민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주두홍은 시골 아주머니를 통해 배웠다. 민족을 앞세우면 반드시 다른 민족과 배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주두홍은 이 지상에서 모든 민족이 해체되는, 즉 다민족을 아우르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사상이 도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은 자민족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초국가주의에서 출발한다는 주두홍의 견해에 박봉석 또한 동조하고 있다.

오족 협화권을 지키기 위해 성전(聖戰)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일제의 주장은 일본족이 만주족, 몽고족, 한족, 조선족 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일제는 5족 가운데 통치 지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민족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동아전쟁을 미화하였다. 대동아전쟁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식민지 쟁탈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전쟁은 분명히 침략전쟁이다. 인종시장의 축소판 같은 사할린에서 박봉석은 소수민족 사이의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 한인 공동체의 질적 발전의 원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사할린에 노무자로 들어온 박봉석은 조선인에게 변변한 일자리조차 제공되지 않은 탓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사할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박봉석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신세를 졌다. 아이누 사람, 백계 러시아인은 물론이요, 결정적으로는 유대계 소련인 샤바라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그는 시베리아 유형을 피할 수 있었다. 상관인 소령의 서명까지 위조해서 귀국허가증을 만들어준 샤바라가 나라 잃은 유대인임을 알고 박봉석은 자신보다 더 역경에 놓인 사람의 인간적인 배려에 감동하였다. 박해받는 민족을 도와주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샤바라를 통해 박봉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협화회에 협력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게 된다.

박봉석은 최목사에게 사할린에 버려두고 온 수양딸 사토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마저 털어놓고 싶었으나 암에 걸린 최목사의 병세가 좋지 않아 샤바라에 대한 이야기만을 고백하였다. 박봉석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박봉석이 최목사에게 해탈 밀렵에 관계했다가

경제 사범으로 걸려 6개월쯤 콩밥을 먹은 적이 있는 죄 많은 자기를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자, 최목사도 박봉석에게 자신의 죄를 털어 놓는다. 최목사는 자신은 사상범으로 몰린 아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선교를 그만 둔 엉터리 목사라면서, 신사 참배를 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아버지의 태도에 실망한 아들이 결국 전쟁터로 나가 전사했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최목사는 자신의 과오를 주두홍에게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일행과 어울리지 못한 채 잔뜩 긴장하던 주두홍은 기차를 타고 수용소에서 지내는 15일 동안 자신의 전력을 털어놓으며 반성하는 박봉석, 유근재, 최목사를 용서하게 되었고 서로 어울리는 사이 그들에 대한 경계심도 완전히 사라졌다.

귀국 날짜가 확정되자 다섯 가족의 부부들은 고민하게 된다. 결국 박봉석, 유근재 두 가족은 일본에 남고, 서만철 부부와 주두홍은 부산가는 배를 타기로 하였으며, 이재길도 도망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기미코는 도시오와 갓난아이 미호와 더불어 수용소에 머물게 되었다. 유근재가 비통해 하면서도 일본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자식들 때문이었다.

우리 애들도 실은 혼혈이야. 조선인과 일본인의 피가 반씩 섞여 있지. 우리는 애가 셋이지만... 이 녀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거려. 전시에는 큰딸이 '조센진'이라고 불렸지만, 이번에 딸들이 조선으로 돌아가면 과연 뭐라고 놀릴까. '쪽발이'라고 불리진나 않을까, 그게 새로운 걱정거리야. '왜놈'의 '튀기'라든가...(하: 27)

유근재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견원지간처럼 서로 미워하는 지금, 조선인인 자신과 일본인인 마쓰코의 두 피가 섞인 자식들이 어디서 살아야 좋을까를 두고 한참을 고민하였다. 일본에서 조센진이라 놀림을 당했던 것처럼, 해방된 조국으로 가더라도 아이들이 쪽발이나 왜놈의 튀기로 불리며 시련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근재는 자식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더라도 민족 문제로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한인과 일본인이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시점에서 그 난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 방법은 한인과 일본인이 서로 민족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로 내재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한인과 일본인의 피가 섞인 사람을 모자람의 의미를 지닌 튀기(half)라기보다는 두 민족의 특성을 지닌 다중국적자(double)로 확인하는 일이 그것이다. 두 민족을 포용하고 있는 다중국적자라는 용어야말로 초국가주의 시대에 진정한 휴머니즘을 향한 새 얼굴이 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회성은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사할린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한인의 유랑적 삶을 형상화하였다. 사할린은 지리적으로 단순한 지점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인의 삶의 터전은 동아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한인의 역사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가운데 정립될 수 있으며, 한민족의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한반도라는 '지역'을 넘어설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회성은 '민족'이란 인간성 회복과 민족적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지 민족지상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⁷⁾ 그의 이 같은 새로운 민족관은 민족 간의 갈등

7) 李恢成, “時代のなかの「在日」文學” 『社會文學』 第26号, 日本社會文學會, 2007. p. 18.

청산이란 권력자/피권력자 혹은 중심/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 다다랄 수 있음을 형상화한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사할린이라는 ‘땅’의 주인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정세에 따라 가변적이었듯이 ‘한인’이라는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초국가주의 사회에서 ‘한인’은 고백과 용서로써 서로를 해방하고 생명 존중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회성은 『백년 동안의 나그네』를 통해 초국가주의 시대에 휴머니즘은 고백과 용서로써 도달될 수 있음을 담론화하였다.

■ 참고문헌

- 이회성, 김석희 옮김, 『백년 동안의 나그네』, 프레스빌, 1995.
 李恢成, “時代のなかの「在日」文学” 『社会文学』 第26号, 日本社会文学会, 2007.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38집 6호, 2004.
 송하춘,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 론(2)”, 『한국학 연구』 11권 1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양명심, “이회성 초기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순형, 『사할린 귀환자』, 서울대출판부, 2004.
 정근식·염미경,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호, 2000.

Discourse on Confession and Forgiveness

--With *The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Written by Lee, Hoisung--

Lee, Hoisung describes the lives of the Koreans who had to wander as a stranger in Sakhalin in *The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As Sakhalin was not a simple geographical spot but an axis of East Asia, it is true that the grounds for Korean people spread out all around the East Asia. The history of Korean people should include the lives of them, and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race can be found when we cross the border of 'the country'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region' of Korean Peninsular.

Lee insisted that the notion 'race'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view of the

recovery of humanity and racial equality, not the racism itself. His new vision of race is well described in *The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which insists that the conflict among races can be settled down through confession and forgiveness between the power and powerless. To be brief, in *The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Lee argued that humanism in the era of transnationalism can be achieved through confession and forgiveness.

Key Words: Lee, Hoisung, stranger, Sakhalin, East Asia, transnationalism, confession, forgiveness, humanism

